

강제 야자 없는 학교...학생 주도 학습 프로그램에 성패

광주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관심 집중

#. 3월 어느날 오후 4시30분. 광주시 북구 A고교 앞의 학교 수업을 마친 고교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면서 북적였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국·영·수학 사설학원으로 직행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제빵사 시험을 준비한다며 학원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정규 수업을 마친 뒤 영화·팟캐스트 방송을 배울것이라며 학교 내 영상 동아리로 뛰어가거나 물리Ⅱ 수업을 받기 위해 친구와 10분 걸리는 다른 학교로 교문을 나서는 학생들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학생부 전형 대비 적절” vs “사교육 늘고 성적 저하”

“다양한 진로 진학 체험·동아리 활동 마련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정규 수업(7교시) 이후 강제성을 띄는 8·9교시 방과후학교(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을 금지하면서 예상되는 광주 일반고교들의 신학기 풍경이다.

광주교육청이 내놓은 강제 보충수업·야간자율학습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을 놓고 고교생들·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교육 활성화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학교가 끌려줘야 하는 중위권 학생들의 경우 성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 적절한 변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등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학습 분위기 저하·사교육 부담 어찌나”=강제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학생 선택권을 무시하는 임시 위주의 획일적 교육정책을 바꾸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다.

현재 광주 고교 상당수는 정규 수업(7교시) 이후 주당 10시간 이내로 보충수업(8·9교시)을 진행해왔다. 지금껏 ‘학생 선택권 존중한다’는 원칙은 형식적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광주지역 일반계고 1~2학년 3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충수업(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2851명)들 가운데 주변 분위기(18.2%), 선생님 강요(13.7%), 부모님 강요(5.3%) 때문에 부득이하게 받고있다는 응답자가 적지 않았다.

보충수업 운영 방식도 주당 10시간 이내로 국·영·수 과목을 중심으로 사외담교,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강제성을 띄는 8·9교시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을 전면 금지키로 밝히면서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역 한 학교의 자율학습 풍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과외담교, 예술·체육 등을 끼여 넣는 이른바 ‘패키지’ 형태로 이뤄져왔다.

광주교육청은 이같은 실정을 반영해 획일적 보충수업 대신,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핵심이 수시 모집 및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 확대인데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내신 외 독서 활동, 동아리·봉사활동, 수상경력 등 내신 외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교육 정책 개편을 늦출 수 없다는 게 광주 교육청 판단이다.

이렇게되면 정규 수업 이후 오후 6시~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전면일률적인 자율 학습 시간·운영 계획에도 변화가 생겨 학생들 자율적 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교육계는 분석하고 있다.

우려 분위기도 감지된다. 교육청 방침대로 진행될 경우 하교 시간만 정규수업·보충수업·저녁시간·자율학습 이후 네 차례로 나뉘게 된다.

학습 분위기가 어수선했지면서 보충수업 대신, 사교육 학원으로 몰리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다양한 프로그램 미흡, 어찌나=교

육청은 ‘일반고 진로진학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보,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청 뿐 아니라 산하기관, 대학·공공기관, 마을교육공동체와도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거세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차별성이 없고 제한적 체험 문제 등으로 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A중학교의 경우 올해 자유학기제에 30

개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농구·요리·세계기행 프로그램 등은 신청자가 물리면서 체험인원이 정해져 있다보니 ‘가위바위보’로 체험자를 정했다.

결국 ‘가위바위보’를 못한 학생은 전혀 관심도 없고 원치 않는데도 학교가 미리 정한 프로그램을 한 학기 동안 받게 돼 학부모들의 불만소리가 터져나왔다.

학부모들은 희망진로·직업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추고 체험 기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고교도 비슷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일각에서는 교사·학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학교 간 격차를 줄일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이 핵심, 다이어리 활용=교육 전문가들은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일반고 혁신 정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교사 지시에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는 ‘학종’ 시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학습·동아리 활동 계획·실행 전략을 수립한 뒤 일·월·학기 단위로 쪼개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유양식 광주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생들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다 보면 해당 분야에 더 깊은 흥미를 느끼고 몰입하는 등 적극성을 띠게 된다”며 “학생 스스로 다이어리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청소년 최고 인기 직업 ‘선생님’...생명 과학자 등 이공계 늘어

교원 침해 등 교사 위상 추락에도 불구하고, 초·중·고교생이 희망하는 직업 1위는 교사였다. 2위는 운동선수(초), 경찰(중), 간호사(고)였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정보시스템 전문가 등을 선호하는 현상은 10년 전에 비해 사뭇 달라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먹방’(먹는 방송), ‘쿠팡’(요리하는 방송) 열풍과 셰프 등의 인기에 힘입어 요리사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교육부가 최근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발표한 ‘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희망직업 1순위는 초·중·고교생 모두 교사였다. 초등학교생 사이에서는 응답자의 9.6%, 중학생은 13.5%, 고교생의 경우 12.0%가 희망직업을 선생님이로 선택했다. 교사는 10년 전에도 1위였다. 다만, 교사에 대한 솔림 현상은 10년 전(초 15.7%, 중 19.8%, 고 13.4%)에 견줘 줄어

들었다.

10년 전만 해도 희망직업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생명·자연 과학자 및 연구원’이나 ‘정보시스템 및 보안전문가’가 올해 상위권(중학생 희망직업의 7, 8위, 고등학교생 3, 6위)에 올린 점은 눈길을 끈다.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에 대한 사회 수요 및 ‘알파고’ 등으로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반영됐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요리사가 희망직업 상위권에 포함됐다. 요리사는 올해 조사에서 초등학교생 선호도 4위(5.7%), 중학생 6위(3.3%), 고교생 7위(2.5%)에 들었다. 요리 관련 특성화고인 전남 조리과학고의 경우 지난 2015년 78명을 뽑는데 184명이 몰리면서 2.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의사나 법조인(판·검사, 변호사)도 여전히 희망직업의 상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 직업을 희망직업으로 선택한 학생의 비율은 10년간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6년 학생 희망직업 10위

순위	초	중	고
1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2	운동선수	경찰	간호사
3	의사	의사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4	요리사	운동선수	경찰
5	경찰	군인	군인
6	법조인	요리사	정보 및 보안 전문가
7	가수	생명·자연과학자 및 연구원	요리사
8	제빵·제과원	정보 전문가	의사
9	과학자	가수	기계공학 기술자
10	프로게이머	공무원	공무원

<자료: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금 올리자니 국고 사업 걸리네...지역 대학들 고민

지역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도, 수년 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불확한 재정난을 고려하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인상할 경우 얻게 되는 ‘득’보다 ‘실’이 많아서다.

2일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산정방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1.5% 이하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고등교육법(11조)을 근거로 2014~2016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0%의 1.5배인 1.5%를 올해 인상한도로 정했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전년도(1.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2014년 3.8%, 2015년 2.4% 등으로 매년 낮아지는 추

세다.

공고대로라면 최대 한도(1.5%)까지 인상이 가능하지만 올릴 수 있는 학교는 사실상 없다는 게 지역 대학가의 분위기다.

당장, 정부 지원 사업에도 영향을 받게된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대학 특성화 사업(CK사업·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등의 경우 평가 요소에 등록금 완화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 인상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온다.

전남대가 최근 3년(2013~2015년)동안 수주한 정부지원 사업비만 2774억원 규모에 이르고 조선대도 지난해만 222억원 수준의 재정지원사업을 수주했었다. 광주대도 지난해만 60여개 과제를 수주, 126억원에 달하는 정부 재정지원

을 받았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금을 무시하면서 등록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학내 반발도 감수해야 한다.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 II 유형’ 선정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학생들 입장에서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선대가 4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유지하는가 하면, 700여 명 수준인 대학원 규모를 늘리고 발전기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해까지 8년 연속 동결 또는 인하를 선택했고 조선대는 지난 2012년부터 인하나 동결 방침을 유지해왔다. 광주대도 지난 2012년부터 등록금을 인하해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건)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금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논,비오는날 9,900원)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